

‘최악의 항공 사고’ 무안 공항 발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구조된 2명 외 179명 전원 사망

전라남도 무안 공항에서 착륙 과정 중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은 구조된 2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17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방콕발 제주 항공 7C2216 편이 착륙 과정에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기체가 공항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발생했으며, 한국 땅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랜딩기어는 비행기 동체 아랫부분에 나와있는 바퀴로, 해당 여객기는 착륙 당시 바퀴가 펴지지 않았고 활주로를 이탈해 착륙하던 가운데 공항 외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173명의 한국 국적 승객과 2명의 태국 국적 승객 그리고 6명의 승무원 등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돌 직전 비행기 후미에 있던 남, 녀 승무원 두 사람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179명의 승객들은 DNA 수색을 통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33세의 남성 승무원은 여러 군데 골절을 입었고, 구조된 25세 여성 승무원은 발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좌석 일부와 승객들의 짐이 불탄 꼬리에서 멀지 않은 활주로 옆 들판에 흩어져 있어 추락 사고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종완 교통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등 2개의 블랙박스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착륙을 시도하던 몇 분 만에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제탑은 조류 충돌 경고를 내렸고, 조종사는 곧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영상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부딪힌 것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은 무안 국제 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무안 소방서의 이정현 소방서장은 사고 원인은 새 떼와 충돌한 “조류 충돌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면적인 조사가 끝난 뒤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류 충돌은 동물이 공기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 비행기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항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직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SBS 한국어